

## 산란계의 호흡기 질병

元 松 大  
(한일사료 기술부장)

오늘날 산란계에 호흡기질환이 걸리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못하여 애를 먹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흡기질환하면 우선 마이코 플라즈마병 그리고 심하면 뉴캐슬병으로 양축가들은 자기진단을 내리나 실은 그렇지 않다.

호흡기 증세가 나타내면 공통적으로 사료 섭취 감소, 산란율 저하, 연란, 기형란 및 불량란의 난질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마련이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폐사 및 도태제도 생긴다. 이런 현상은 수종의 병원체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좀더 공부해야 될것 같다.

우선 산란계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전염성기관지염(IB)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발병 2~3주간내 산란율 감소와 난각의 변화가 심한 영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여기에 마이코플라스마(MG)합병을 일으키므로 그 피해가 더욱 심한 경우가 많다.

이런점을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속히(IB)백신 개발에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IB 백신은 생독 백신으로 산란하기전까지 3회만 접종

한다면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흔히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계두와 마이코플라스마(MG)와 합병하여 산란율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것 역시 12~15주령 사이에 2침으로 접종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도 접종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한침만으로 접종하여 병을 초래하는 수가 왕왕 있다.

다음은 뉴캐슬병 문제가 산란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산란계에서 ND 접종을 실시했는데도 뉴캐슬병에 가볍게 감염되어 호흡기 증상과 약간의 설사만 보이고 산란율이 저하하는 경우이다. 백신의 문제에서는 좀더 연구실에서 연구할 문제이다. 겨울철 ND와 마이코플라스마 혼합 발병시 장기간 병세가 지속하여 막대한 약값을 지불하는 양계장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초산란 30일전에 사독접종을 필히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이 넘으면 재접종을 꼭 실

시하되 스트레스를 최소한 줄여서 마이크로프라스마병이 야기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ND와 IB 혼합백신이 개발되어 일석이조의 이익을 보는 양계인의 꿈이 곧 성취 될줄 믿는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테노 바이러스에 의한 산란율 감소문제이다.

구라파에서 EDS 76 이라 하여 백신까지 개발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다.

아직 원인은 알수 없으나 산란율 80% 이상 잘 지속하다가 불과 일주일 내에 20~30% 하락하여 다시 원상복귀가 잘안되는 계통이 있다. 사료도 잘 먹고 모든 외부 증상은 보기에 정상인데 다만 약간의 호흡기만 보일뿐이고 특히 초산계에서 공통적으로 야외서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우리 양계인에게 숙제로 남은 질병으로 만일 EDS 76과 같은 아테노바이러스가 문제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부화장과 종계장에서 취해져야 하겠다.

뒤편이 해도 오랜세월 동안 양계인을 괴롭혀온 것은 마이크로프라스마에 의한 호흡기병이다. 건강하고 산란도 잘하던 계군인데 어떤 스트레스 인자만 있으면 서서히 나타나서 오래 지속하며 산란율이 5~20% 정도 감소하는 경우는 겨울철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이 병의 백신이 없으므로 사양관리 환경관리에 주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단독 발생하는 경우보다 위에 열거한 질병과 혼합발병하거나 또는 타질병의 후유증으로 발병하므로 흔히 C. C. R. D라 부른다. 시중에 약제가 많이 시판되나 정말 어느것이 잘 듣느냐 하는것은 전문수의사의 진단으로 투여하는 것이 빠른 치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염성 코라이자는 자주 듣는 질병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은것 같

이 여기나 이병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발병하는 호흡기병이다.

안면이 붉은 것을 특징으로 하나 초기에서는 타질병과 구별하기 힘드므로 치료에 빗나갈수 있다. 다행이 이병은 썰파제에 잘 듣는 편인데 썰파제투여가 산란율에 영향을 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병 역시 마이크로프라스마(MG)와 합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초기에 약제투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양축가에게는 약값 지불에 보람을 얻기도 한다.

이와같이 겨울철 산란계에서 산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흡기 질환은 수종이 있으므로 우선 질병이 침입할 수 있는 침입로 차단과 겨울철 환기와 보온을 병행 할 수 있는 계사관리 그리고 영양분이 고르게 잘 배합된 사료선택 등 유의하여 겨울철 산란계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다. 80년대를 향한 산란계 농장의 염원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 생산 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양질의 사료와 우량추를 공급받는 일이다.

최근 feed stuff 개제된 C. R. D 및 코라이자 치료방법은 아래와 같다.

- C.R.D : \*크로르테트라사이클린 사료톤당 100— 200g 혼합투여 또는 음수투여  
\*에리스로마이신 사료톤당 92.5— 185g 혼합투여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사료톤당 100 — 200g 혼합투여  
\*스펙티노마이신 주사  
\*타이로신 사료톤당 800— 1,000g 혼합투여
- 코라이자 : \*에리스토마이신 물 20ℓ에 2g 용해 5—8일간 투여  
\*셀파디메독신 0.05% 수용액에 5—7일간 계속투여  
\*스트렙토마이신 근육주사
- ※ 위의 용량은 activity base기준이다.